

지난 100년의 동아시아 자유주의: 개념사적 분석과 사상사적 서술

강명희 지음, 「동아시아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한울아카데미, 2021)를 읽고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I. 동서양의 사상적 만남

책 표지에 12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유럽인 6명과 동아시아인 6명이 각각 아래위에서 비스듬히 이어진 두 선분 위에 나열해 있다.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붓자국의 선분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줄지어 있는 유럽인은 홉스, 로크, 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등으로서 서양의 근대를 마련했던 쟁쟁한 사상가들이다. 위에서 아래로 늘어선 동아시아인은 후쿠자와 유키치와 나카에 조민, 옌푸와 량치차오, 유길준과 서재필 등 한·중·일의 지식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근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서양의 다양한 사상을 학습하면서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잘 알려진 사상가들이다.

표지의 그림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서양을 학습하면서 서양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19세기 중엽 이래 서양의 열강이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중·일은 생존을 위한 국방(國防)의 근대화를 기획하면서 서양이 부강한 국가를 만들게 된 사상적 배경을 학습하고자 했다. 이들 세 나라는 이른 시기부터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지만, 각자가 처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서양을 학습하고 새로운 지역을 구상하는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가 세

국가의 지식인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한 국가를 단위로 삼는 일국사의 방법을 넘어서 동아시아 연구라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연구가 표지에 드러낸 12명의 사상가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공리주의자 벤담과 콩트, 국가유기체론자 브룬칠리, 사회진화론자 스펜서와 헉슬리,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 미국의 민주주의를 논한 토크빌 등을 거론한다. 일본인으로는 『자유론』을 번역한 나카무라 마사나오, 『사회진화론』을 저술한 아리가 나가오, 자연법을 소개하고 나중에는 천부인권론을 비판한 가토 히로유키 등 메이지 시대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중국인으로는 무술정변(1898)의 주역이었던 강유웨이와 탄스퉁,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장빙린과 쑨원, 5·4신문화운동을 대표하는 후스와 천두슈, 중국문화의 장점을 바탕으로 서양문명의 장점을 수용하고자 한 장쑤마이와 장둥쑨 등 근대 중국의 사상계를 수놓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국인으로는 박영효, 윤치호, 김구, 이승만을 비롯하여 『개벽』, 『동광』, 『신천지』를 빛낸 필진들까지 등장한다. 등장인물과 서술 방식만 보더라도 이 연구는 오랜 시일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한 역작이다.

20세기 전환기는 동아시아가 서양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시기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아시아는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을 형성해 왔다. 3세기 무렵 서역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를 수용했고, 17세기경에는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유럽의 천주교와 과학을 학습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가 서방의 종교와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서 그러한 종교와 과학을 만들어 낸 서방세계 그 자체를 깊이 탐구하지는 않았다. 동아시아가 외부 세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서양의 열강이 동아시아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 책의 표지에 등장하는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서양을 학습하기 시작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동아시아가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동서양의 사상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II. 수입된 자유와 자유주의

동서양의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자의 사상적 전통과 문화적 토대를 총체적으로 동원하면서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서양의 사상적 만남을 학문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동서양이 직접 대면하는 평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화적 토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전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다. 이야말로 동서고금에 대한 총체적 시야를 요청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표지에 등장하는 12명은 이러한 전략을 위해 선택된 인물들이다. 즉 저자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 유럽의 대표적 사상가를 선정하고, 서양에서 기원한 자유 혹은 자유주의에 주목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지식인들을 선정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주목했던 서양의 자유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나아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거의 모든 사상적 조류를 함께 학습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서양 학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다양한 서양 사상 가운데 자유주의에 한정해서 분석하는 전략을 택했다. 연구 범위를 축소한다고 할지라도 동서양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시야가 요청되기는 마찬가지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양의 자유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이해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수용하고 이해하는 주체들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비로소 서양사상에 대한 수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 사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건은 번역의 문제다. 자유주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양 기원의 개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버터와 치즈와 같이 동아시아에 그때까지 없었던 사물이라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음역(音譯)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붓다(Buddha)도 석가모니(Shakyamuni)도 이런 방식의 번역이었다. 부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반야(prajna) 혹은 열반(nirvana)과 같이 불교의 심오한 진리도 음역을 통해 이해했

다. 음역이라고 해서 인도의 불교가 그대로 동아시아에 전래된 것은 아니다. 음역을 통해 인도불교를 새롭게 상상했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위에서 번역을 통해 형성된, 동아시아의 특성이 가미된 한역불교(漢譯佛敎)였다. 이와 달리 ‘자유’와 ‘평등’은, 이 연구를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liberty와 freedom의 번역으로 선택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각 지역에 공유된 근대적 언어이면서,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고전 문헌 속에 이미 사용된 고전적 언어였다. ‘자유자재(自由自在)’ 혹은 ‘평등일승(平等一乘)’과 같이 불교를 설명하는 경전에도 사용되었다.

‘자유’ 혹은 ‘자유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서양과의 만남 이후에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언어다. ‘자유’라는 용어는 한자문화권의 어휘 체계에서 이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고 오히려 부정적 용례가 더 많았다. 물론 동아시아의 언어 체계 속에 ‘자유’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용례가 서양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제기된 liberty 혹은 liberalism과 동등한 혹은 유사한 차원의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자유’라는 용어가 ‘자주’보다도 뒤늦게 liberty의 번역으로 정착된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자유’의 고전적 용례에 담겨진 ‘제멋대로’라는 부정적 의미가 거론되기도 한다. 심지어 ‘자유’는 ‘ 좋지 않은’ 번역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유’의 고전적 용례, 특히 부정적 뉘앙스가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 끼친 영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자유’는 liberalism의 영향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III. 자유의 다의성과 자유주의의 모호성

동아시아의 전통적 언어 체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용례에 의거하여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전통을 논할 수는 없다. 유럽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지적 전통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서술이 동아시아의 고대 언어에서 시

작할 수는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자유’의 전통은 그러한 언어적 용례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한자문화권의 언어 체계 속에 ‘자유’라는 용어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느 지역에서도 개인과 사회로 구성된 국가 질서 속에서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는 마땅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이미 인용했듯이, 미국의 중국학자 드 배리(Wm. Theodore De Bary)는 중국의 신유학(Neo Confucianism)에서 강조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 자득(自得), 자임어도(自任於道), 자겸(自謙)과 같은 용어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용어가 개인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적 자발성을 고취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에서 ‘자유’의 전통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면서 천리(天理)의 실현을 이상으로 간주한 유교적 사대부들의 고양된 정신을 자유주의적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신유학에서 발견된 자유주의 전통이 지난 1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유학의 자유주의 전통과 동아시아 근대 자유주의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거론하는 것은 사유방식의 지속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논의로 흐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오히려 이러한 ‘자유 정신’이 전근대 시기에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동아시아 자유주의가 좌절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불교가 인도불교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듯이,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또한 서양의 자유주의가 그대로 이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역사가 곧 서양 자유주의의 이식과 수용의 역사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서양의 자유주의를 학습하면서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고뇌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동아시아의 근대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내부에서조차도 한·중·일 세 나라가 서양의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과정 또한 동일할 수는 없었다. 저자는 이들 세 나라가 서양의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근대적 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을 조망하고자 했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에 자유당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전후에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출현했다. 20세기 후반에 전개된 한국과 일본의 정당정치를 통해서 볼 때, 자유를 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은 대체로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현재도 자유는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언어라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견해를 대변하는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원래부터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참정권의 확대를 주장한 영국의 휘그당은 자유당(liberal party)으로 불렸으며, 당시로서는 진보적 성격을 표방하였다. 미국의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만 보수적 정당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자유의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적 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 서양에서 기원하고 서양의 정치적 사회적 토대 위에서 성장한 서양의 자유주의는 원래부터 논쟁적 주제였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자유와 자유주의는 언제나 논쟁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유주의라는 정치사상이 논쟁이었던 것은 ‘자유’라는 개념에 다층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천부의 자유를 외치는 주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천부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성립한 적이 없다고 자유의 천부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개인적 자유의 존엄성, 특히 양심의 자유를 인권의 가치로 제기하는 철학적 주장이 있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자유를 외치는 경제적 자유주의도 있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는 한편,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여 정부의 개입을 통해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도 있다. 서양에서 중세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면서 성장해 온 자유주의는 몇 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서양을 학습하면서 주목한 자유 혹은 자유주의는 이처럼 진보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던 애매한 개념이었다.

IV. 개념사와 사상사

표지에 등장하는 서양의 사상가들은 16세기에 활동한 홉스(1588-1679)부터 19

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밀(1806~1873)에 이르기까지 3세기에 걸쳐 있다. 이에 비해 표지에 등장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한 세대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부터 가장 젊은 량치차오(1873~1929)까지 모두 20세기를 전후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동아시아의 근대적 지식인들은 서양에서 3세기에 걸쳐 전개된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과정을 한꺼번에 학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왕조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질서를 모색해야 했던 다급한 시대였다. 서양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논쟁적이고 다층적이기도 한 자유주의의 이념을 한꺼번에 학습한다는 것은 소화불량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10여 년 사이 동아시아의 학계에서 동아시아의 근대를 분석하는 틀로서 개념사적 방법론이 성행하였다. 독일의 개념사(Begriffsgeschichte) 연구는 1750년에서 1850년에 걸쳐 유럽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근대를 설명하고자 한 역사학상의 방법론이다. 개념사에서 개념이란, 철학에서 정의하듯이 엄밀한 내포와 외연을 규정하는 보편적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은 미래의 기획을 위해 역사를 추동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의미론적 투쟁을 거치면서 의미를 전유하기도 한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개념사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대 연구에서 개념사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림과학원의 개념사 총서 시리즈가 보여 주고 있듯이, 이 연구도 근대 서양에서 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수용과 이해 과정, 그리고 자유와 자유주의 개념의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물론 역사적 개념의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는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역사적 기본개념』과 스킨너(Q. Skinner)를 비롯한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파의 정치사상 연구 등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대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유럽의 근대를 밝히기 위한 개념사적 연구방법론을 동아시아의 근대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 근대 개념의 형성 과정이 유럽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등 동아시아의 근대 개념이 서양을 학

습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개념들이 기존의 용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서양이라는 필터를 통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고전적 용례와는 단절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근대 국가를 서둘러 건설해야 하는 지식인의 사상적 조급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에서 간행된 개념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념사’로서 통합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역사, 문학, 정치, 사상 분야에서 각각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개념사 연구를 위한 토대, 즉 어휘통계학적 연구 또는 분야별 사전 등 개념사 연구를 위한 학적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개념의 의미 변화에 대해 집중하면서 개념의 사회적 실천 과정을 통합해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연구 또한 개념사적 연구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자유주의에 관한 사상사적 서술이라고 겸손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인물 연구를 벗어나 잡지와 신문 등의 주요 논설을 대상으로 개념사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이 처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유주의의 정신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탐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념사적 분석을 토대로 지난 100년 동안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의에 관한 사상사적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인물 중심의 사상사적 서술이 아니라 ‘사상사사전(Dictionary of history of ideas)’에서 시도된 사상사 연구 방법론을 동아시아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전개된 liberty에 대한 번역의 역사, 메이지시대의 정치사상에서 루소식의 자유주의와 영국식 자유주의의 분기, 다이쇼시대와 쇼와시대, 그리고 2차대전 이후까지의 ‘자유’를 거론하였다. 중국 부분에서는 청말민초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형성된 ‘자유주의’의 수용, 5·4 시기를 거쳐 1940년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서술하였다. 한국 부분에서는 1880년대 자유주의의 소개와 정치적 변동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제헌헌법에 반영된 자유주의를 다루었다.

V. 동아시아 자유주의의 좌절과 성취

동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진 지난 100년 동안의 자유주의에 대한 탐구는 그야말로 방대한 작업이다. 한국의 자유주의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한 권의 연구로서도 부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자유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사상사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세 지역은 20세기에 처한 시대적 조건, 그리고 각자의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달랐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자는 서양의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세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광범한 자료를 섭렵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사유방식을 추출해 내는 저자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밀의 『자유론』(1859)이 『자유지리(自由之理)』(1872), 즉 자유의 원리로 번역되었고, 중국에서는 『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1905), 즉 집단과 개인의 권리의 한계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한국에서는 1880년대 개화파 지식인들이 일본 사상계와 접촉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주창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19세기 중엽 이후로 서양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일본은 입헌군주 체제로서 천황제 국가를 수립했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공화국 체제로 중화민국(1912)을 탄생시켰다. 한국에서는 입헌과 의회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제군주체제로서 대한제국(1897)이 성립하였다. 서양의 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전개된 동아시아 세 지역의 정치는 각자의 처한 현실과 문화적 전통에 따라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쇼와시대 일본은 파시즘 국가로서 전쟁을 위한 총동원체제에 들어가면서 반자유주의시대가 되었으며, 전후에는 ‘주어진 자유’가 이론적 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천황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체제가 건설되면서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민주와 과학을 내세운 중국의 5·4운동에서는 자유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강조되었고, 1920년대 이후로는 서방세계의 자본주의와 관련된 자유주의가 중국에서 호감을 얻지 못했다.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자유주의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마오쩌둥의 「자유주의를 반대한다」(1937)라는 선언은 이후의 중국에서 자유주의의 운명을 예언하는 주문이었다. 나중에 타이

완은 자유중국으로 불렸지만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국민당 일당체제로 나아갔다. 1910년부터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여 자유주의를 구현할 토대를 잃어버렸고 자유주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하던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부터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는 제도적 모색을 강구하였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반공주의의 기치 아래 권위주의 체제로 나아갔다. 동아시아 각 지역은 나름대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나, 주어진 현실과 시대적 조건이 자유주의의 실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 책의 백미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담론과 실천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도 공통점을 추출하고자 한 제6장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에서 학습한 자유주의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동아시아에서 자유의 다양성이 강조되기보다는 평등과 사회적 공정이 중시되는 경향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습득한 자유주의적 사유방식이 동아시아인의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실험이 전개되면서 내적으로 ‘자유주의의 정신’이 조용히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수입된 자유주의가 동아시아가 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식, 즉 자유를 향한 꿈은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주목한 것은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liberty, rights, liberalism, freedom 등의 개념이 동아시아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하였다는 점이다. 문화적 사상적 전통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인들이 서양 기원의 개념과 이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원래부터 사상적 고투를 요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버럴리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요인이 작동할 수 있고,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 조건들이 작동할 수 있다. 어느 쪽의 요인이 더 강한 작용을 한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저자가 제시한 전자의 요인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이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요인으로는 동아시아 각 지역이 놓인 위기 상황, 즉 부강을 추구하고 독립을 달성해야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근

대적 과업이었다. 동아시아 차원을 넘어서는 요인으로서 동아시아가 자유주의를 학습하고 있을 때 세계는 이미 민주주의적 보통선거권을 확대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갔고, 사회경제적 자유와 평등의 요소를 도입한 사회적 자유주의로 변모했으며, 자유주의는 이미 철 지난 ‘19세기의 이념’으로 배척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자세히 밝힌 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 같이 자유주의를 지지할 만한 신흥계급의 성장이 충분하지 못했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민족 진흥의 목적을 강력히 추구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 동아시아가 자유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시기에 자유주의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정을 강요받은 지나간 이념이었다. 동아시아의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저자의 평가는 사상사적 서술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좌절이라는 평가는 자유주의의 이념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이념형을 결여한 모습에서 제시될 수 있는 주장이다.

저자가 이 책의 서두에서 리버럴이라는 말을 좋아했다고 회상하듯이, 이 책이 상정하는 자유주의는, 관용과 배려, 개방된 이미지로 장식된 이념으로 보인다. 코젤렉의 개념사총서에서도 ‘자유주의’ 항목을 다루고 있지만, 자유주의의 이념을 상정하기보다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발화자의 의도와 기획에 의해 변화하는 흔적을 쫓아간다. 따라서 코젤렉의 개념사 시리즈는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아니라 ‘전망(Ausblick)’을 보여 주었다. 유럽의 근대에서 자유주의는 의미론적 투쟁을 거치면서 자유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의 지평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사 연구는 마지막에 그다음 단계를 전망하고자 한 것이다. 유럽의 근대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여전히 자유의 이상으로, 자유의 정신으로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가 여전히 사상사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니는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2년 11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